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1월 3일(금)

(음력 12월 9일)

Пятница

3 января 2020г.

№ 1(116868)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새해를 맞이하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레닌 광장.

(이예식 기자 촬영)

### 친애하는 동향인 여러분, 섬 지역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기 전 저물어가는 한 해의 총결을 지었습니다. 뭔가는 잘 되었고, 뭔가는 마무리를 못했고, 또는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올 한 해와 연관된 좋은 것들은 기억하고 따뜻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건넵시다.

새해가 오기 전 서로서로에게 소중하고 따뜻한 인사 잊지 마시고 잘못과 상한 마음은 이해하고 배려와 관심으로 서로를 보듬읍시다.

새해에는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가정이 번창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과 각 가정에 더 나은 변화가 일어나길 기원하며 가정은 안락하고 따뜻함으로 가득하고, 또한 하시는 모든 일에 성취와 번영과 건강과 평화와 번창을 기원합니다!

새해, 새로운 변화, 새로운 희망, 특별한 일, 새로운 승리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2019년 12월 30일

### 현재 "사할린 징용 피해, 헌법소원 심판 대상 아니다"

러시아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 헌법소원 청구인들 "국가가 제대로 조치 안 했다" 현재 "국가 노력 게을렀다고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가 일제강점기 시절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문제 해결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지난 2012년 11월 현재 사건을 접수한 지 7년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현재는 대한민국과 일본 간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분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한 모 씨 등은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 등으로 러시아 사할린에 동원됐다가 이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당시 일본 회사가 경영하던 광산의 탄광 등에서 강제로 일했으나 우편저금 및 간이생명보험 형태로 급여를 강제로 적립했고, 지급받지는 못했다.

이후 한국은 지난 1965년 6월 일본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일본 정부는 이 협정으로 인해서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한국 정부는 '그대로 남아있다'며 반박하는 등 양국 간 분쟁이 벌어졌다.

이후 한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 2200여 명은 지난 2012년 11월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3면에 계속)

### 친애하는 사할린 동포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달려 온 2019년을 이제 아쉽게 떠나보내고 새롭게 2020년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치면 습관적으로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지난 2019년은 다행히 국제적으로 큰 분쟁이나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오랜만에 천하가 태평한 평화스러운 한 해로 회고됩니다.

이러한 국제적으로 안정된 환경 아래 우리 동포들의 삶의 터전인 사할린도 차근차근 발전의 기반이 갖추어져 가고 있으며, 생활환경도 나날이 개선되어 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축되고 준비된 사할린의 잠재력이 2020년에는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어, 사할린이 동북아시아 북방의 거점지역으로 화려한 각광을 받는 시대가 하루 빨리 오길 기원합니다. 특히, 우리 동포들께서 사할린과 한국, 사할린과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사할린의 국제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사할린에서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소수민족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2020년은 한국이 러시아와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30년 간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큰 발전이 있었으며, 2020년도에는 한·러 양국 교역액 300억 달러, 인적교류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는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동포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2020년 한 해 내내 동포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가정과 이웃에 복 짓는 특별한 한 해가 되시길 중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박기동 소장



### Дорог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Закончился полный надежд и смелых решений 2019 год, и наступил новый 2020 год.

Когда завершается год, мы по привычке используем фразу «насыщенный трудностями», но, к счастью, 2019 год вспоминается, как мирный и спокойный год, в котором не произошло крупных мировых конфликтов 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В такой стабильной мировой обстановке Сахалин, где обосновались наш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постепенно становится фундаментом для развития, и можно ощутить, как условия жизни здесь изо дня в день улучшаются.

Желаю, чтобы 2020 год стал годом уверенного скачка для накопленного за это время потенциала Сахалина, чтобы как можно быстрее пришло время, когда Сахалин окажется в центре всеобщего внимания, в качестве опорного пункта для продвижения на север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особенности желаю, чтобы наш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взяли на себя важную роль в интернационализации Сахалина, соединяя Сахалин и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Сахалин и Северо-Восточную Азию.

Кроме того, в 2020 году исполнится 30 лет со дн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Россией. За прошедшие 30 лет отношения двух стран имели большое развитие, и в 2020 году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увеличить внешнеторговый оборот до 30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Что касается гуманитарных обменов, то цель - чтобы страны посетили до 1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В связи с празднованием 30-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анцелярия планирует провести разнообразные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и просит все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явить интерес и принять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Искренне желаю все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здоровья и счастья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усть 2020 год станет особенно благословенным для ваших семей и ваших близких.

Спасибо!

Квак Ки Донг, начальни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새고려신문 다음 호는 1월 17일에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사 편집부

Сообщаем, что следующий номер газеты  
выйдет 17 января 2020 г.

# 2019년을 돌이켜보며

## 새고려신문에 게재된 사할린한인 사회계의 주요 사업·행사·사건·

2019년에는 3·1만세 운동 100주년, 사할린 한인 강제동원 80주년, 사할린에서 첫 <아시아 아이들>유청소년 국제동계스포츠대회, 새고려신문이 70주년이 되는 해였고 사할린 한인 사회계에도 다양하고 중대한 행사들이 많은 해였다.

**1월 12일** - 사할린 텔레라디오공사 우리말방송 이복순 기자가 <사할린 한인 강제징용 80주년>이라는 기획으로 우수 프로젝트 부문에서 체호브상 받음.

**1월 24일** - 사할린주 향토박물관관에서 <사할린의 한인들, 사할린 국립박물관 소장 수집품 목록(1945년-2018년)>이라는 독특한 수집품 목록집을 편찬하여 출판하여 기념회를 개최.

**1월 26일-2월 1일** - 음력설을 앞두고 KIN(지구촌동포연대) 대표단이 사할린을 방문해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전달식을 가졌다. 한국 대표단은 크라스나고르스크, 우글레고르스크, 사호츠크르스크, 보쉬냐코워, 아나와, 코르사코브, 유즈노사할린스크 등지를 찾아 동포들을 만나 구술작업을 진행, 현지 동포들의 현황을 파악. 본사 기자도 일부 지방 일정을 함께 취재.

**2월 2일** - 주한인협회,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1세 어르신들을 모신 가운데 기해년 설맞이 행사를 가짐.

**2월 8일** - 사할린 한인 문화센터에서 주한인협회가 주최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사할린 한인 2세 문제, 사할린 한인에 대한 특별법, 가족 영주귀국, 국적, 보상문제, 사할린 한인 무연고 추모관 문제를 논의했다.

2월 8일 - 2월 17일 - 사할린에서 제1회 <아시아의 아이들>유청소년국제동계스포츠대회 개최. 이에 카자흐스탄, 한국, 일본, 태국 비롯 세계 20개국의 팀들이 참가해 8개 종목(스키, 하키, 쇼트트랙 등)에서 경쟁.

**2월 18-21일간** - 민주평통 유럽지역회의가 주최하고 민주평통 블라디보스톡협의회가 주관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약 60명의 민주평통 유럽·중동·아프리카협의회 자문위원, 언론인 등이 3박4일 일정으로 사할린을 방문. 이들과 한국 국회 이종걸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사할린에서 이들은 역사 및 문화 탐방과 몇 가지 행사를 갖고 그중 하나로 19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 동포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2월 19일** -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 황명희 소장의 임기가 끝나 2019년 2월 19일부로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 출장소에 새 소장으로서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광기동 부총영사가 부임.

**2월 20일** - 3월1일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평화통일페스티벌>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옥짜브리"영화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럽지역회의가 주최하고 민주평통 블라디보스톡협의회·사할린주 한인협회가 주관하고, 사할린주정부·주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주유즈노사할린스크 영사출장소)·사할린한국교육원이 협조했다.

**2월 22일** -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영화 '귀향'이 상영됨.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식 참석차 사할린 방문한 박신민 민주평통자문위원(미국달라스)이 이 영화를

사할린 한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가져와 상영함.

**2월 27- 28일** - 양일에 걸쳐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열렸다.

**3월 18일 - 22일** - 사할린 주정부의 초청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학생단이 사할린을 방문하여 학교와 문화역사기관 등을 견학하였다. 이들은 3차 전국 외국어학원 러시아어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학생들이다.

**3월 26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체호브센터에서 <극장은 착한 세계에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무대>란 역사다큐 전시회가 열렸다. 이 전시회는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보관부와 주 역사 고문서보관소가 개최했다. 전시에 사할린 조선 극장(1948년-1959년)도 소개되었다.

**3월 31일** - 사할린 국립대가 주최한 "재능"예술창작 경연대회의 "51+"연령 그룹 중 "무용" 부문에서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단장 박영자)이 우승.

**4월 7일** - 사할린 국립대에서<러시아 대학생의 봄 2019> 사할린 지역 단계를 진행되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무용, 음악, 연문, 노래 등의 부문에서 경쟁했다.

<악단 연주>부문에서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사물놀이그룹(지도 송 알리크)이 1위를 차지했다.

**4월 14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근교의 "위스토크"교육훈련센터에서 사할린주 씨름협회(회장 춘 알렉세이)의 주최로 제1회 사할린주 씨름대회가 개최.대한씨름협회(회장 박팔용)는 새로 생긴 주 씨름협회에 실내 씨름장을 제공했다.

**4월 16일** - 대한적십자사의 주최로 정기적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렸던 사할린한인 동포단체 대표자 회의가 하바롭스크에서 진행되었다.제16차 대표자 회의에는 사할린주 한인회, 사할린 노인회, 사할린주이산가족회, 극동 한인 이산가족협회(하바롭스크), 연해주 한인 이산가족협회, 지역 간 사회 단체 사할린 한인협회(모스크바), 사할린 이산가족 동포회(모스토프나도누), 사할린 향우회(카자흐스탄)등 회자들이 함께하여 영주귀국 및 모국방문 사업계획 논의, 한국 정부에 사할린한인 동포 특별법 채택 요청 결의문 제출.

**4월 22일** - "사할린주 팀"인재 발굴경연대회 우승자 발표 시상식에서 최종 우승자 55명이 발표되었는데, 사할린 한인 동포로는 "스트로이인웨스트"의 리정진 대표, "가스프롬 도비차 쉘프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이 안드레이가 선정되었다.

**4월 25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지미르 푸틴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짐.

**4월 26일** - 주정부(교육부), 사할린국립대학교(어문역사동양학대학),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사할린한국교육원) 주최로, 사할린국립대학교에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탈 문화"를 주제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4월 26일** - 사할린 국립대에서 "전통에서 생의 기를 찾으며"라는 주제로 15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2019 사할린주 한국 문화 경시대회'가 개최됨.

**4월 27일** - 사할린주 탁구협회의 주최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애플"사옥 운동실에서 제 34회 사할린주 한인디아스포라 탁구 챔피언 대회 개최.

**5월 9일** - 5박6일 일정으로 사할린을 찾은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의 베프터재단 봉사단(16명)이 사할린주 한인협회(회장 박순옥)와 함께 활동을 펼쳤다.

**5월 11일**은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한국마사회는 사할린 한인 1세들을 위한 위문잔치를 열었다.

**5월 12일**은 봉사단은 코르사코브 방향의 언덕에 세워진 사할린 한인 희생자위령탑을 찾아 추모식과 현장 미화 사업을 진행.

**5월 11일-18일** - 제 7차 유골봉환사업, 한인묘지 확인 등의 문제로 한국 행정안전부 대표단이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을 담당할 황동준 과장과 함께 사할린을 방문,

**5월 15일** 사할린주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한인 묘지 확인과 유골봉환 문제 논의.

**5월 13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체호브극장에서 사할린주에서 5번째 사할린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한국 농어촌 희망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합동연주 개최. 9일에 내도한 키도(KYDO, 40여명)는 사할린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교류 연주 5주년을 맞아 첫 공연을 **5월 12일** 코르사코브시 '오케안'문화회관에서 펼침.

**5월 18일-21일** - 새고려신문 70주년 기념, 강제징용자의 낯을 위로하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새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서울굿, 사할린에 가다>위령제 행사단 15명이 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 우글레고르스크시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성대한 굿관과 강연을 펼침. 주최: 새고려신문사, 샬미니즘 박물관(서울), 주한인협회.

**5월 20일** - 사할린주 한인협회 등,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문화상 국회의장, 법안 대표 발의자 전혜철 의원과 김동철 의원등 총 39곳에 청원서를 발송(청원서 내용 본지 5월 24일호 게재)

**6월 1일** - 70년 전 조선로동자(현 새고려신문)지 첫 호 발간

**6월 4일** - 대한민국 국회 원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일제강점 아래 사할린 강제동원 역류피해자 한국 잔류 유족회 신순순 회장이 유가족 10명과 함께 강제동원 피해자인 부친, 조부 등의 흔적과 묘를 찾고자 사할린을 방문. 이날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간담회가 열려 사할린주한인협회 측에서 원혜영 의원에게 청원서 전달.

**6월 7일** -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행사로 "새고려신문 70주년/우리들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전시회 개최.

**6월 7일** -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새고려 신문 70주년 기념식과 글짓기(한국어, 러시아어) 대회 시상식이 열림.

**6월 18일-22일** - 사단법인 경기 민예총 소속 예술인 26명이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방문. 해외 문화예술 탐방의 일환으로 하여 지난 역사 속에서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을 민간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털어보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바로잡아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는 목적으로 방문.

**6월 19일-23일** -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서울국제도서전'에 허로만 시인이 참가하여 코엑스 전시관에서 "허로만의 높은 음표"라는 제목으로 창작의 밤을 가짐.

**6월 26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한인문화센터와 사할린 동포 희생자 위령비와 사할린 한인 이증징용 광부피해자 추모비 앞에서 제 26회 사할린 동포 희생자 추념 행사를 진행. 주최: 해외희생동포추념사업회(회장 이용택).

**6월 26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가가린호텔 컨퍼런스실에서 한국 한림대학교와 사할린국립대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 7회 2019 시베리아 연구 국제 학술회의에서 "사할린 한인들을 위한 평화와 연대"를 주제로 진행.

**6월 26일**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 여자대학교 자원 봉사자 20명이 한국 문화를 통한 한국어 연수 발표회 개최.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중재와 북한의 신속한 응답으로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함께 DMZ구역 방문 후 오후 4시가 넘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을 가지며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7월 5일 - 9월 4일** - 한국 문화예술위원회는 국제교류 해외 정착 거점 예술가 파견사업으로 사할린에 김남중 동화작가를 2개월간 파견.

**7월 6일-9일** - 역사문화 탐방을 목적으로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연수단 61명이 사할린 한인 역사 탐방.

**7월 8일** - 사할린한국교육원(원장 김주환)이 한국 인제대학교 한국어 문화 교육원(원장 이수경)이 교류 협정을 체결

**7월 10일** -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제4차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의료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7월 22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가가린호텔 회의실에서 김남중 한국 작가와의 만남 개최. 주최: 새고려신문사, 사할린한국교육원.

**7월 27일** - 마카로브시 행정부 앞 광장에서 제 6회 민족 간 축제 <우리는 함께다> 개최. 행사는 마카로브구역 행정부, 마카로브한인회 주최, 사할린주 한인협회 협조로 진행.

**7월 27일** - 제4차 사할린 1세대 동포 진료료 사할린 어르신 11명

이 한국으로 출발. 한국 정부는 한국 국제 보건의료재단을 통해 2016년부터 사할린 1세 동포 한국 초청 진료사업을 해오고 있다. 이번에 이들은 정선의료재단의 온종합병원(부산)에서 정밀검진과 치료를 받음.

**8월 2일** -사할린 주 향토박물관에서 박승의 전 사할린 국립대 교수가 펴낸 "사할린 한인들, 정체성을 찾아"라는 제목의 모노그래픽 도서 출판기념회가 열렸음.

**8월 4일** 오전 8시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간사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양현 무소속 의원 등이 한인 문화센터에서 사할린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짐. 동포 약 300명 모여 사할린 한인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요구.

**8월 8일 - 8월 10일** 진행된 <유즈니 스트리트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초청된 한국의 락 그래피티 스튜디오의 작가들이 첫 작품을 '달네에' 마을에서 완성하였다. 그들은 아파트 벽면에 다채로운 색상의 연어 그림을 그렸다.

**8월 11일** - 사할린주 한인협회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 주한인협회 2/4분기 보고, 주 한인노인협회 김홍지 회장 사퇴 표명, 새 회장으로 김종길 씨가 선출되었다.

**8월 11일-14일간** 한국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을 비롯 김한표, 서영교,곽상도, 박용진, 전희경 위원들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교육위 대표단의 주요 방문 목적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교육에 대한 실태 파악. 사할린 측에서 동포교육 등 지원 올려달라 요청.

**8월 12일** -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주 한인협회 주최로 제5회 사할린 한인 청소년 역사캠프 개막. 이들은 4박5일간 타라나이 마을의 한 휴양 캠프지에서 지내며 사할린 한인사와 한민족 문화를 배움. 후원: 동북아청소년협의회(이사장 김연고)

**8월 15일** - <사할린> 텔레라디오공사의 우리말 TV방송 15주년.

**8월 16일** - 사할린주 한인 사회계 대표들이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과 한인문화센터에서 만남을 가졌다. 한인 사회계의 대표들은 자체 단체와 기관의 사업을 소개하고 사할린 한인 문화, 역사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8월 16일** - 제1회 사할린 미래의 영화제 "빛의놀이"가 개막하면서 영화관 "옥짜브리"와 "콤소몰레츠"에서는 청소년들이 제작한 단편 영화들 79편과 비경쟁 프로그램으로 초청된 영화들을 상영. 비경쟁프로그램에는 한국 영화 중 <꼭두-수호천사>와 <미스터 아이들> 작품이 참가.

**8월 17일-18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광복 74주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남부 사할린과 쿠릴 열도 해방 74주년 기념으로 "우정의 날"축제가 펼쳐져. 행사에는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대행, 세르게이 나드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 참가.

(7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문예콩쿠르 특별상

# 사할린에서 타향살이 80년, 우리 가족 역사의 운명이 되었다

전채련 (1931년생)

(2019년 12월 27일 호의 계속)

내가 18세 되던 해, 1948년 12월 한국에서 오신 1925년생 청년 이석봉 씨와 나는 결혼하여 아들 둘과 딸 둘을 낳아 살면서 한국 고향의 소식을 들으려고 밤이면 라디오 곁에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 고향에 가기 위하여 무국적으로 지냈습니다. 그 당시 북조선 공민증을 받은 사람이 많았지만 다시 러시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북조선 공민증을 러시아 국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남편 이석봉 씨는 왜 사할린으로 오셔서 남아 살다가 사망하신 사연과 역사는 이렇습니다.

이석봉 씨는 1925년에 충청북도에서 태어나 세째 막내로 성장했습니다. 네 살 때 부친이 경기도 장호원사에서 사망해서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소학교를 졸업하고 17세 때 고모의 소개로 안성 시내 일본인 개인 치과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견습생으로 배우며 일을 잘해서 원장님께 신용과 사랑을 받아 성공하게 되었는데, 원장의 처인 일본여자가 많이 차별하여 기분이 상해 그 집에서 퇴직하고 한인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던 차에 남편의 둘째 형님이 결혼하고 두 달 후 일본인의 지시를 받아 사할린 돌린스크 지역 스타라롭스크촌에 가서 산비탈 옆 땅굴을 파는 일을 시켜 한인들과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1년 후, 한국에 있던 형수가 딸 아이를 낳고는 두 달 후 사할린에 남편이 일하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였답니다. 동생되는 우리 남편은 20세에 형수와 두 달 된 조카딸을 데리고 형님을 만나보러 가겠다고 사할린에 간다고 하니 시어머님도 말씀하시길 "나도 따라가서 두 아들을 만나보러 너와 같이 가겠다." 하셔서 어머님과 형수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사할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사할린에 와서 형님들을 다 만나보고 곧 어머님과 큰 형님과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일본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신체가 건강하게 보여 일본인이 석봉씨에게 신체 검열을 하러 가자고 하며 끌고 가서 3차례 여러 곳을 통해 검열하여 건강 상태가 최고라고 하며 비코브 탄광에서 일을 시키고, 군대 훈련을 해야 한다며 끌고 가서 낮에는 일을 시키고 저녁과 휴일에는 하루종일 훈련을 시켰습니다. 며칠 지내는데 밥을 너무 적게 주어 배가 고파고 고생을 많이 하였답니다. 일본 청년단 표를 앞 가슴에 붙여주고는 "너는 훈련하면 내년 5월에 전선에 나가야 하니 어디에 나가지 말고 열심히 훈련하라."고 옥박질렀답니다.

일본의 한 방 기숙사에서 자는데 춥고, 배도 너무 고파 눈물까지 나왔답니다. 하루는 나무로 네모나게 만든 도시락 그릇을 가지고 경찰에게 가서 밥통을 보이며 밥을 너무 적게 주어 일하고 훈련하기가 힘들다고 말을 하니 경찰이 똑같은 도시락 그릇을 가지고 와서 옆에 놓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것을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석봉씨가 다른 사람들은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쉬는데 본인은 군대 훈련도 받고 있어서 두 곳에서 일하는 것과 같으니 배급 통장을 따로 주면 감사같은 것을 받을 수 있을테니 배가 고프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하니 경찰이 전화로 식사 책임자에게 시라카와상은 곧 전선에 나갈 청년이니 식권 통장을 떼어 내주라고 했습니다. 돌아와 책임자에게 가니 식권표와 찹쌀, 팥 등을 싸주어 받아왔습니다. 1945년 5월에 전선에 보내겠다고 했는데 5월이 지나도 전선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쟁이 끝났답니다.

그래서 돌린스크시 형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형님 가족과 살면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무국적 상태로 지내며 소방대 회사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일본 본토로 떠나기 시작할 때 러시아인들이 돌린스크시로 와서 탄압을 시작하면서 일본인들의 치과용 기계를 다 압수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사람들이 입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치과의를 찾았습니다. 안성이 고향인 석봉 씨 외 고

향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자고 하자 석봉 씨 생각에는 병원에서 일을 하면 고향에 빨리 못 갈 것이라 생각하여 거절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온지라 가자고 차에 태워 끌려가다시피 해서 할 수 없이 일본의 약으로 치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약이 다 떨어지자 러시아의 여자 치과의사가 와서 러시아 약을 들여와서 그 후로 일을 하시다가 러시아의 치과 전문의 증서가 있어야 하니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중앙 러시아 치과에 가서 1개월간 시험을 치고 돌아와서 낮에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개인영업 허가를 받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년간 병원에서 일을 하였고 은퇴하고는 몸도 많이 아파서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주해 왔습니다. 아들 가족과 외손자 가족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거주하고 있으니 자주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비코브에서 굶주리며 훈련을 많이 받고, 추운 방에서 자며 일도 많이 해서 감기를 자주 앓다가 폐병까지 오게 되어 자주 입원하곤 했습니다. 큰 땅 소치 근방의 병원으로 가서 수술까지 하고 왔습니다. 이후 위장도 치료를 받았으나 1996년 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고향에 가겠다고 오래 기다렸는데 사할린 타향에서 사망했으니 우리 가족은 불쌍한 마음이 자주 들고 조금만 더 살아 계셨으면 소원대로 영주귀국 하시게 되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자주 납니다. 우리 큰 딸은 노위시비르스크시 경제대학을 졸업하고 한인 청년과 결혼하여 남편이 졸업한 후 세라뿔이라는 도시로 가라는 지시를 받아 거기에서 삽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어서 자주 오지 못합니다. 소포로 여러 가지 옷과 구두, 치약 등을 부쳐 주며 휴일마다 전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작은 딸은 사할린에서 결혼하여 아들, 딸 둘을 놓고 살다가 남편이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 홀로 산 지 벌써 22년째입니다. 지금은 한국 포천시에 가서 손자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작은 딸도 자주 전화를 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라 현재는 전쟁도 없고, 연금을 받으며 생활을 하는지라 편히 잘 지냅니다. 한 달에 두 번씩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음악에 따라 노래도 부르며 기분 좋게 춤도 추며 시간을 보내는데 시 한인회 회장님 임중환씨와 부회장 안영수씨와 또 시 여성위원들이 의논하여 1세대 노인들을 위하여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며 잔치상처럼 차려놓고 대접하여 주십니다. 한 달에 두 번 토요일에 모입니다. 명절 때는 음식을 더 많이 차려주시고 선물까지 주십니다. 며칠 전에 어버이날 기념행사 때는 노인들과 같이 노래도 부르고 놀다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대접 받았는데 점심 후 노인들에게 금일봉도 챙겨주시며 잘 쓰시라고 하셨습니다. 노인들은 많이 고마워하며 다같이 박수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잘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행사는 오랫동안 잊을 수 없습니다. 노인정에 늘 감사합니다.

주 한인문화센터에서도 주 한인협회 회장 박순옥씨와 이산가족 부회장 박경춘 씨도 사할린에서 한인들을 위하여 시내 사업 문제와 구역 한인들을 돕는 사업 등 한국으로 출장, 명절 행사 등 많은 일을 도와주시느라고 수고가 아주 많습니다.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대접하시느라고 아주 바쁘십니다. 명절 때마다 우리 1세대 노인들을 초대하시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고 에트노스 학생 무용단도 초대하여 무용을 보여주고, 박영자 씨가 지도하시는 아리랑 무용단도 출연하십니다. 현재는 한인들의 문화생활이 아주 발전되어 자랑감이 되고 있습니다. 1세대 노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음식 대접을 받고 음악에 따라 어깨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1세대 노인들은 전에 많은 일을 하여 피곤해서 오래 노시지도 못하고 집으로 가신다고 나가십니다. 그런데 집으로 갈 때에는 선물까지 주십니다. 대단히 감사하지요. 저는 행사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오랜 기억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한인 문화센터의 훌륭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채련 올림.

2019년에 사할린을 다녀간 김남중 동화작가의 연재 칼럼을 시작한다. 김남중 작가가 살아오면서, 동화를 쓰면서 느꼈던 울림들을 짧게 정리한 이야기다.

##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 소원을 말해 봐

스무 살 때 내 옆에는 말 잘 통하고 상냥하고 예쁜 여자 친구가 있었다. 둘이 함께 걸으며 이제껏 살아온,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해 끝도 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잘 놀라고 기뻐해 주는 여자 친구 앞에서 나는 멋진 남자가 되고 싶었다. '밤하늘의 별도 달도 따주는...' 그런 남자.



그런데 여자 친구는 스무 살이 되도록 별뿔별을 못 봤단다. 나는 안타까웠다. 그 숨 막히도록 아름다운 순간을 내 좋은 사람이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니...

노력하면 별뿔별을 볼 수 있다. 내가 경험했으니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학년 때 나는 별뿔별을 보기 위해 가을 내내 하늘만 쳐다보고 다녔다. 덕분에 여기저기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하수구에 발이 빠지기도 했지만 결국 어느 순간 보고 말았다. 신이 하늘에 대고 '부욕!' 그어던 성냥불 같은 내 첫 별뿔별을.

가을 밤길을 걸으며 나는 여자 친구에게 별뿔별을 보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늘만 보면 넘어지니까 문득, 자주 하늘을 봐요. 이렇게!

두 손으로 여자 친구의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향하게 한 순간, 기다렸다는 듯 별뿔별 하나가 하얗게 빛나며 떨어졌다. "저거, 저거!" 여자 친구가 놀라 외쳤고 나는 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다.

어떻게 한 거냐고 여자 친구가 계속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고 여자 기숙사를 향해 걸었다. 혼자 돌아오는 길은 여느 때와 다르게 발걸음이 힘찼다. 나는 여자친구에게 별을 따준 남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마법을 믿는다. 별뿔별에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는 전설도 믿는다. 점점 세상을 알아가는 두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면 자신 있게 대답한다. 아빠의 첫 여자친구에게 물어보라고, 엄마는 진실을 알고 있다고. 김남중

## 헌재 "사할린 징용 피해, 헌법소원 심판 대상 아니다"

(1면의 계속)

이와 관련해 헌재는 "행정 권력의 부작위(不作爲·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며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 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가는 일본에 대해 사할린 대일청구권 문제 등에 대해서 외교당국 간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고, 국장급 면담 및 실무협의 등을 통해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해 왔다"며 "헌재도 그와 같은 기초가 철회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쟁 해결 절차를 언제·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국가마다 가치와 법률을 서로 달리하는 국제 환경에서의 외교 행위 특성 등을 고려한다면 국가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가시적인 성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자신에게 부여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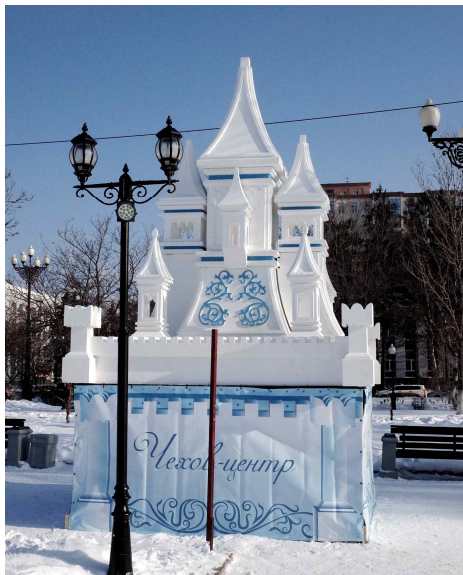
그러면서 "국가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위헌을 주장하는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가가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한편 이종석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한일 협정에 따른 외교적 노력을 하라고 선언하는 것은 작위의무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반(反)해 행정부의 권한만을 침해할 소지만 발생시킨다"고 의견을 냈다.

[서울=뉴시스]



# С Новым годом и Рождеством!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новогоднем убранстве.



Фото: ЛИ Е СИК

## Гороскоп на 2020 год

5 января 2020 в 00:43 (московское время), по Восточному календарю, начинается год Металлической или Белой Крысы. Наступление Нового года – всегда обновление, но 2020 год не просто новый год, это начало нового 12-летнего цикла. Свинья (Кабан), подводит итоги за предыдущие 12 лет, а Крыса, закладывает фундамент на будущие 12 лет, можно сказать, открывает путь в новую жизнь.

Именно поэтому 2020 год считается значимым абсолютно для всех знаков как восточного, так и западного зодиака. Каждый вправе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самые крутые перемены.

Конечно, не стоит надеяться только на везение, придется потрудиться и проявить упорство и трудолюбие. Нельзя сказать, что это будет простой период, ведь за 12 месяцев нужно постараться, чтобы заложить основу чего-то нового, прочного, достойного.

Это время позитивных перемен,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вы не будете лениться и возьмете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все,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в вашей жизни, на себя.

### Основные тенденции 2020 года

Тенденции 2020 года будут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характеру хозяйки года. Крыса – добродушна, галантна, щепетильна и честна в решении деловых и личных вопросов. Она обещает много положительных перемен, удивительных подарков и сюрпризов. Она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могает заработать деньги и накопить богатства, было бы желание.

Для Крысы свойственна борьба за власть и богатство. Она всегда замахивается на высоты, недоступные взору, а целей добивается уверенно и твердо. Она никогда не о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на достигнутом, а жизнь чувствует как радост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к неизведанным берегам. Поэтому любые ее поиски заканчиваются новыми планами. Крыса является двигателем активности, приносит с собой прогресс и жажду исследования.

Крыса – животное амбициозное, трудолюбивое и сообразительное. Поэтому, чтобы понравиться хозяйке года, перейдите ее жизненные приоритеты: больше времени уделяйте собственному здоровью, укрепляйте отношения внутри семьи, трудитесь, ставьте новые цели. Крыса почувствует родственную душу, если вы будете действовать напористо и уверенно, и поможет вам добиться грандиоз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в самых сложных делах.

Однако помните, что Металлическая Крыса сильная и независимая. Она не потерпит, если вы пустите дела на самотек, и будете только лишь ждать подарков судьбы.

Любые мысли и действия, несущие негатив, могут разозлить хозяйку года. Поэтому, если вы еще не научились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свой эмоциональный фон, в новом 2020, это выйдет на передний план и вам придется настроить себя на позитив. Также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в год Крысы категорично недопустимы интриги и пренебрежи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деньгам.

В отличие от западного мира, где Крыса считается вредителем, на Востоке, – это священное животное, которое символизирует храбрость, и способность добиваться поставленной цели, чего бы это ни стоило.

Поэтому 2020 год будет особенно удачным для амбициозных и целеустремленных людей. Буквально с первого дня мы заметим перемены во всех сферах жизни, но особенно сильно тенденции этого года про-

явятся в ег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 Финансовая сфера в 2020 году

В сфере финансов год Крысы обещает быть благоприятным для любого рода деятельности. Влияние Юпитера и Сатурна окажет самое благотворное воздействие на новые проекты, идеи, а также на смену профессии, расширение, инвестиции. Крыса – первый знак восточного гороскопа, а значит, она приветствует освоение всего нового.

Главное, в год Металлической Крысы, выбирать ту работу, которую вы делаете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а если деятельность еще связана и с творчеством, то, как говорится, «вам все карты в руки».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Крыса благосклонно относится к тем людям, которые инвестируют средства в собственные эмоции. Она щедро одарит тех людей, кто никогда не жалеет денег на душевную встряску: концерты, путешествия, походы, обучение. Так что, для всех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в 2020 году, зеленый свет.

Энергии стихии металла в 2020 году буду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роявлению у людей таких качеств как: общительность, решительность, готовность рисковать, стремление в достижении целей. В этот период, возможно, будет не хватать логики, поэтому необходимо проявлять сдержанность в своих чувствах и опираться на консервативные идеи. Это поможет более трезво оценивать, как свои поступки, так и чужие.

Поскольку слишком много разных идей и планов будет влиять на поведение людей, то придется руководствоваться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ью в своем выборе. Наибольшего успеха достигнут те, кто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и свой опыт, и чужой, а в некоторых ситуациях стоит помнить, «что лучше синица в руках, чем журавль в небе».

В 2020 году возрастет интерес к материальной стороне жизни, появится желание рисковать, испытывать удачу в азартных играх, а многие решения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ся под влиянием чувств и настроения. В год металла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отводится интуиции для сохранения своего капитала и достижений.

В этот период у многих людей могут раскрыться или проявиться в новом качестве, организаторские таланты, умение видеть позитивные и негативные стороны событий или отношений. Все это, несомненно, повлияет на финансовую стабильность и потребуе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координировать не только свои усилия и финансы, но и финансы и способности других людей, чтобы достичь максимального результата.

### Бизнес и карьера в 2020 году

В 2020 году наиболее успешно будут развиваться новые проекты в бизнесе, науке, искусстве, а в экономике, в том числе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могут произойти радика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также ожидаются крупные перемены в сфер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финансов и страхования. В целом,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перемены затронут все области, где требуется серьезность, методичность, скрупулезность и предприимчивость.

На энергиях Металла, как правило, происходи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перемен, а Крыса способствует реорганизации в чиновничьем и бюрократическом аппарате.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 станут решаться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борьбы со взяточничеством и казнокрадством.

Стихия Металла потребует от госаппарата в большей мере проявления заботы о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х слоях населения и пенсионерах. Будут приняты новые законы, способствующие более рациональному распределению средств на социальные нужды. Есть большая вероятность образования неожиданных и взаимовыгодных деловых,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и народами.

У многих людей появится желание отстаивать собственную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подсознательно стремиться расширить зону своего влияния и достичь власти. Даже те, кто всегда был в тени, захотят по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в качестве лидера, правда, некоторые останутся довольны ролью «серого кардинала».

В год Крысы у некоторых людей может проявиться интерес к чужим слабостям ради возможности управлять и манипулировать другими. Поэтому, тщательно храните свои секреты и позаботьтесь о крепком и надежном тыле.

Карьера большинства людей в год Металлической Крысы может складываться нестабильно, но, в целом, все равно успешно. Все затруднения можно преодолеть благодаря обостренной интуиции.

Главное, в этом году не позволяйте себе сплетничать, критиковать, сравнивать, придирайтесь к мелочам. Кому-то придется бороться с тягой к накопительству, приобретению вещей, что часто проявляется в год Крысы. Однако только большие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планы, а также умение внедрять перспективные, прибыльные идеи в жизнь будет для многих людей залогом успеш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Для многих 2020 год будет связан с активным общением, презентациями, проявлением себя в совершенно новой сфере, кто-то выступит в рол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лидера, политического реформатора. Легкие отношения, где царят пустая болтовня, суета, ненужные встречи, не сулящие практической выгоды, в этом году могут сойти на нет.

### Семейные ценности в 2020 году

Крыса покровительствует тем, кто дорожит своей семьей. Она поможет укрепить отношения и добавит страсти в любовной сфере. В год Крысы, как правило, заключаются надежные, крепкие союзы.

Поэтому это — период очень благоприятен для создания семьи. А благодаря энергии стихии Металла, удастся найти решения многих, казалось бы, самых сложных и запутанных вопросов, внутренних конфликтов и противоречий.

Расположение планет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стремление обрести семью и зачать ребенка, будет приветствоватьс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А если пренебрегать семейными ценностями, то можно очень быстро отпугнуть от себя удачу.

Для женщин год Крысы может послужить началом раскрытия красоты. Возрастающее обаяние и ярко проявленные женские качества не только привлеку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поклонников, но и помогут получить неожидан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касающиеся карьеры.

Мужчины же в 2020 году будут проявлять себя более рационально и практично, и даже в любовных отношениях не будут «терять голову», ведь главная их забота на этот период - карьера и финансовое положение.

Как подружиться с Белой Металлической Крысой и максимально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й потенциал, вам поможет гороскоп на 2020 год по знакам зодиака и году рождени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интернет-сайтов)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По итогам году в РК будет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туристов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и Национа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туризма Кореи полагают,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побывавших в стране, достигнет рекордной отметки в 17,5 млн человек. Предыдущий максимальный показатель в 17 млн 240 тыс. человек был достигнут в 2016 году. Объём доходов в сфере туризма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25 трлн 100 млрд вон или 18 млрд 100 млн долларов. С января по ноябрь РК посетили 5 млн 510 тыс. китайцев, что на 26,1%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ток туристов из стран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вырос на 10%, составив 2 млн 940 тыс. человек.

## В РК растёт уровень выживаемости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больных

В РК численность людей, проживших более пяти лет после того, как у них было диагностировано онкологическое заболевание, впервые превысила 1 млн человек. В доклад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онкологическим заболеваниям говорится, что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017 год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1 млн 39 тыс. 659 человек – 55,7% от общего количества пациентов, у которых был диагностирован рак. В период с 1999 по 2018 год в стра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1 млн 870 тыс. выживших пациентов. Это люди, которые проходят лечение или полностью излечились. Относительный уровень выживаемости больных, заболевших раком в период с 2013 по 2017 год, составил 70,4%. Это на 16,3% выше, чем за период с 2001 по 2005 год. Самый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выживаемости по видам онкологии отмечен при раке щитовидной железы – 100,1%, рака простаты – 94,1%, рака груди – 93,2%. Низкий показатель среди больных раком печени – 35,6%, лёгких – 30,2%, поджелудочной железы – 12,2%. Между тем, в РК в случае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жизни до 83 лет вероятность онкологическ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составляет 35,5%. Уровень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в РК составил 264 случая на 100 тыс. жителей. Средняя отметка по ОЭСР 301,1 случая.

## РК сконцентрирует усилия на развитии технологий четвёртой промышленной революции

В рамках подготовки к четвёртой промышленной революции РК намерена сконцентрировать усилия на развитии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на баз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нтернета вещей и больших данных. Для этого определены 20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в которые к 2023 году будет вкладываться более 172 млрд долларов в год. 23 декабр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й совет по вопросам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утвердил четвёртый план содействи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м инновациям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компаний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содержанием. Он был составлен министерством малого, среднего и венчурного бизнеса. Его суть сводится к укреплению стратегии инвестиций в технологии четвёртой промышленной революции. Среди направлений, подлежащих активной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оддержке -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большие данные, облачные услуги, интернет вещей, связь пятого поколения, виртуальная и дополненная реальность, трёхмерный принтинг, функциональные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умные заводы, робототехника, беспилотные автомобили, блок чейн,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е материалы и другие.

## В РК один из самых низких в мире «уровней счастья» среди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Южнокорейские дети и подростки испытывают нехватку сна. Кроме того, «уровень счастья» среди них гораздо ниже, чем в странах ОЭСР и крупнейших европ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ах. Как сообщили во вторник в Институте статист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южнокорейские дети и подростки спал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среднем 7,3 часа в сутки. Среди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6,1 часа. С возрастом у школьников снижается и уровень физи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Помимо этого, отмечается фактор стресса. 33,8% школьников говорят, что иногда у них возникает желание умереть. 37,2% из них считают, что наиболее частая причина таких переживаний - проблемы с учёбой. От 41% до 48% детей, помимо учёбы в школе, более трёх часов в сутки посвящают занятиям. Только 27%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могут позволить себе отдых более трёх часов. В младших классах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ляет 45,3%. По уровню удовлетворённости жизнью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РК получила 6,6 баллов, что является самой низкой отметкой среди стран ОЭСР и Европы, где показатель колеблется от 7,8 до 8,1 балла. Аналогичная ситуация наблюдается только в Турции. (RKI)

## Южнокорейский концерн построит в Благовещенске 4-звездочный отель

Южнокорейский концерн, который уже построил и управляет в России несколькими гостиницами, намерен расширить свою гостиничную сеть в РФ, построив еще один отель в Благовещенск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со ссылкой на источники, близкие к концерну.

Как следует из публикаци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намерен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деволперском проекте "Золотая миля", который начнут реализовывать в Благовещенске с 2023 года. Проект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оздание целого комплекса объектов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отдыха и туризма.

Согласн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планам, в Благовещенске возведут 10-этажный 4-звездочный отель на 224 номера. В гостинице также будут рестораны, фитнес-центр, спа-салон и другие удобства.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нгломерата ведут переговоры с компанией, которая отвечает за общую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Золотая миля".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по поводу конкретного вида и размеров отеля будет принято в том числе и после консультаций с

местными жителями", - заявили в концерне.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этот регион имеет хорошие перспективы в плане туризма, данный район ежегодно посещают более 140 тысяч человек, а потому спрос на гостиницу есть.

Отметим, что концерн, который будет строить отель в Благовещенске, уже успел себя хорошо зарекомендовать в России как компания, которая создает гостиницы самого высокого класса и поддерживает высочайший уровень сервиса. Так, одно из зданий даже получило звание "лучшего отеля Москвы". Помимо столицы компания построила отель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управляет отелем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центре Сеула перед главной гостиницей концерна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появилась "площадь Пушкина", где возведен памятник русскому поэту. Место под монумент предоставили бесплатно,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я идею создать подобный "уголок России" в центр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лицы.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 Россия выделит почти 5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снижение детской смертности в КНДР

Россия выделит 4 миллиона 800 тысяч долларов на борьбу с детской смертностью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Средства поступят в КНДР по лини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гуманитарной программы ООН, которая нацелена на снижение детской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и смертност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о сообщению посольства РФ в Пхеньяне, 25 декабря российский посол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передал послу по особым поручениям МИД КНДР Ли Хын Сику ноту, "в котор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НДР информируется о том, чт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аспоряж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проекта Детского фонда ООН (ЮНИСЕФ) "Снижение детской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и

смертности путем проведения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х и лечеб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КНДР" с бюджетом 4,8 млн. долл. США".

Как отмечено в сообщени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НДР Ли Хын Сик заверил, что данное сообщение будет немедленно доведено до свед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НДР.

Напомним, что в этом году Россия уже выделяла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з РФ в КНДР было поставлено восемь тысяч тонн пшеницы. Общая стоимость поставки тогда составила около восьми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 제 69 회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공고

- 목적
  - 가. 재외동포,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
  - 나. 한국어 능력을 측정,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
- 대상 :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 일시 : 2020. 4. 12(일) 09:30~16:00
  - 가. TOPIK I : 오전 / TOPIK II : 오후

구분	교시	영역	입실 시간	시작	종료	시험 시간(분)
TOPIK I	1교시	듣기 읽기	09:10	09:40	11:20	100
	2교시	듣기 쓰기	12:20	12:50	14:40	110
TOPIK II	1교시	듣기 읽기	15:00	15:10	16:20	70
	2교시	듣기 쓰기				

- 입실시간 : 매 교시 30분 전
- 장소 및 시행처 : 사할린한국교육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가. 일시 : 2020. 1.9 ~ 2020. 1.30
  - 나. 장소 :

교부장소	주소	전화
사할린 한국교육원	유즈노사할린스크 미라 83-A	505696

- 응시 수수료 : 500루블, 사진 2매 (3\*4)
- 시험결과 발표 : 2020. 5 이후

## Внимание!!!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слушателей на 2020 учебный год.

Начало записи: с 15 января 2020 г.  
Начало занятий: 10 февраля 2020 год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50-56-96

Также всю интересующую Вас информацию вы можете найти на сайте нашего «Центра» : <http://www.sakhalinedu.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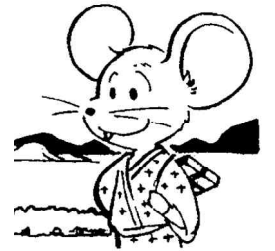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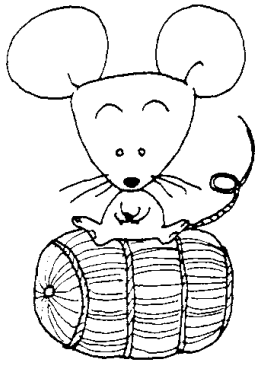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2020년

경자년

	1월 음력 12-1월					2월 음력 1-2월					3월 음력 2-3월						
월		6	13	20	27		3	10	17	24		2	9	16	23	30	
화		7	14	21	28		4	11	18	25		3	10	17	24	31	
수	1	8	15	22	29		5	12	19	26		4	11	18	25		
목	2	9	16	23	30		6	13	20	27		5	12	19	26		
금	3	10	17	24	31		7	14	21	28		6	13	20	27		
토	4	11	18	25		1	8	15	22	29		7	14	21	28		
일	5	12	19	26		2	9	16	23		1	8	15	22	29		
	4월 음력 3-4월					5월 음력 4-4월(윤달)					6월 음력 윤 4-5월						
월		6	13	20	27		4	11	18	25		1	8	15	22	29	
화		7	14	21	28		5	12	19	26		2	9	16	23	30	
수	1	8	15	22	29		6	13	20	27		3	10	17	24		
목	2	9	16	23	30		7	14	21	28		4	11	18	25		
금	3	10	17	24		1	8	15	22	29		5	12	19	26		
토	4	11	18	25		2	9	16	23	30		6	13	20	27		
일	5	12	19	26		3	10	17	24	31		7	14	21	28		
	7월 음력 5-6월					8월 음력 6-7월					9월 음력 7-8월						
월		6	13	20	27		3	10	17	24	31		7	14	21	28	
화		7	14	21	28		4	11	18	25			1	8	15	22	29
수	1	8	15	22	29		5	12	19	26			2	9	16	23	30
목	2	9	16	23	30		6	13	20	27			3	10	17	24	
금	3	10	17	24	31		7	14	21	28			4	11	18	25	
토	4	11	18	25		1	8	15	22	29			5	12	19	26	
일	5	12	19	26		2	9	16	23	30			6	13	20	27	
	10월 음력 8-9월					11월 음력 9-10월					12월 음력 10-11월						
월		5	12	19	26		2	9	16	23	30		7	14	21	28	
화		6	13	20	27		3	10	17	24			1	8	15	22	29
수		7	14	21	28		4	11	18	25			2	9	16	23	30
목	1	8	15	22	29		5	12	19	26			3	10	17	24	31
금	2	9	16	23	30		6	13	20	27			4	11	18	25	
토	3	10	17	24	31		7	14	21	28			5	12	19	26	
일	4	11	18	25		1	8	15	22	29			6	13	20	27	

- 음력설 1.25
- 한식 4.5
- 단오 6.25
- 초복 7.16
- 중복 7.26
- 말복 8.15
- 추석 10.1
- 성탄절 12.25

절기 소대입우경춘청곡입소망하소대입처백추한상입소대동  
 한한춘수칩분명우하만중지서서추서로분로강동설설지  
 월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양력) 일 6 20 4 19 5 20 4 19 5 20 5 21 7 22 7 23 7 22 8 23 7 22 7 21



# 2019년을 돌이켜보며

## 새고려신문에 게재된 사할린한인 사회계의 주요 사업·행사·사건

(2면의 계속)

**8월 19일** -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사할린 주 한인협회와 디아스포라문화원(한국) 공동 주최로 사할린 강제 동원 80주년 기념 춘계 시낭송회를 개최.

**8월 23일 - 30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브센터에서 제9회 사할린 국제영화제 개막. 2019년 제9회 사할린 국제영화제에는 40여 개국이 참가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한국 영화로 <우리별 일호와 얼룩소>애니메이션, 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 <악인전>과 <집>애니메이션을 상영.

**8월 24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민족통일 대구시 청년 협의회 대표단의 주도로 광복 74주년 기념, 한러 수교 29주년을 맞아 제13회 <대구의 밤>행사를 개최.

**9월 5일-8일 간** - <사할린에 남겨진 코리아를 찾는 여행>프로그램으로 동포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일본인들이 이미 10년째 사할린을 찾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8명의 활동가들은 포자르스코에 27한인 피살자 추념비를 비롯해 사할린 동포와 관련 여러 곳을 방문.

**9월 8일** - 사할린에서 주지사 선거를 포함해 네벨스크·노글리 구역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의회 의원 선거가 진행되었다. 주지사로 알레리 리마렌코가 당선.

**9월 8일부터 시작하여 2개월간** - 한국 국립국어원이 사할린에 파견한 한국어 예비 교원들이 실습의 범주에서 현지 교육기관에서 본격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 사업의 목적은 한국어 예비교원에게 국외 실습의 기회를 제공해 한국어 교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이미 2년째이 이 사업을 경희대학교(사업 담당 박동호 교수)가 사할린에서 실시하고 있다.

**9월 14일** -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서 "사할린 한인"전시회를 개최하여 사할린주 향토 박물관, 주한인협회, 새고려신문사와 우리말방송국 등의 소장품들 중 사할린 한인의 역사, 생활양식, 전통, 관습 및 사회 활동의 역사를 반영한 실질적 생활의 의미가 있는 물품들이 전시되었다.

**9월 21일 및 23일** -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의 양 수도에서 사할린 강제 동원 80주년을 맞아 <사할린 한인 역사 80주년 기념 세미나 및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관련 문제>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러시아 지역 간 사회단체 '사할린 한인협회'(모스크바)의 주최·주관, 한국 재외동포재단과 모스크바 주재 한국 대사관의 후원으로 진행.

**9월 23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약 150명이 모인 가운데 민족통일 대구시 수성구 협의회 주최 사할린주 한인협회 주관인여성회 주관으로 사할린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가 펼쳐졌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민족통일 대구시 수성구 협의회 대표단 21명, 회장 김동근이 3박4일 일정으로 사할린을 다녀갔다.

**10월 5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제7차 사할린 강제 동원 한인 희생자 유해 봉환 추도식과 환송식이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유족 16명이 사할린을 찾고 14위를 한국으로 봉환. 주최/주관은 한국 행정안전부, 사할린한인협회, 주노인협회.

**10월 6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가가린공원 "코스모스"경기장에서 주 한인협회의 주최로 사할린주 한인디아스포라 미니 축구시합이 펼쳐졌다. 홈스크 팀이 승리하고, 2위는 아니와, 3위는 포로나이스크 팀이 차지했다.

**10월 9일** - 한글날 573돌을 맞아 사할린 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대학 한국어과 교실에서 사할린주 한국어 교사협회와 사할린 한국교육원 공동 주최한 한국어 교사 연수가 열렸다. 동북아청소년협의회가 후원.

**10월 11일** - 사할린 국립대학교에서 K-POP 경연대회가 열려K-POP 춤과 노래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이날 자신의 실력을 한껏 발휘했다. 후원: 동북아청소년협의회.

**10월 11일-13일** - 서울시와 서울 아리랑 축제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19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이 펼쳐졌다. 전통 및 창작 아리랑을 통해 자웅을 겨루는 자리인 전국 아리랑 경연대회의 늘푸른 청춘 부문에서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 무용단이 금상을 수상하였다.

**10월 12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제2회 "장인들의 도시" 문화체험 축제가 개최되었다. 사할린주 한인회가 추진하는 "세대의 연결, 전통의 이어짐"이라는 기획으로 2018년 처음 개최된 이 행사에 200여 명이 모였다.

**10월 13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무술대회 개최. 유즈노사할린스크, 홈스크, 체호브, 시네고르스크 등을 대표하는 50여 명의 선수들이 이날 당수도과 태권도 경기로 승부를 겨루었다. 주최/사할린한국교육원, 주관/오스트로브무술센터, 후원/동북아청소년협의회.

**10월 16일** -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한국 국회 정문 앞에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촉구를 위해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를 위해 박 회장과 함께 사할린주 한인협회 김홍지 고문, 사할린주 한인 여성회 김웨철 회장이 방한해 시위에 참여했다. 1인 시위를 시작 직전에 특별법 제정 문제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할린주 한인협회(회장 박순옥), 전국 사할린 귀국동포연합회(회장 권경석), 지구촌동포연대(공동대표 배덕호, 김종철)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강제 동원의 아물지 않은 상처 사할린 동포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하여 사할린 동포들이 1인 시위를 시작한다며 그와 더불어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도 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10월 16일** - 사할린 국립대학교에서 사할린 국립대학교와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 연구소 공동으로 "러시아와 한국 : 문화의 대화와 상호 영향"이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10월 19일** - 사할린 한국교육원 주최로, 동북아청소년협의회 후원으로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전통 김치축제 개최.

**10월 21일** - "모두 알고 싶다! 나의 성은 초이가 아니라 최입니다."라는 주제로 한국의 성씨와 이름에 대한 강연을 하기 위해 한국 외국어 대학교 방일권 교수가 사할린을 방문해 두 차례 강연을 진행했다.

**11월 16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한겨레 아리랑 연합회 사할린주 한인협회 공동 주최, "아리랑 스프링"의 주관으로 제3회 "사할린 아리랑제"가 열렸다. 한민족 공동체 실현을 위한 이 아리랑제는 한국(울릉도, 제주도, 춘천, 양주, 영천, 예천 등지) 중국, 러시아의 하바롭스크 및 사할린 예술인 40여 명이 다양한 아리랑으로 아름다운 무대를 펼쳤다.

**11월 18일** - 충청남도 예산군 "윤봉길 체육관"에서 대한 씨름협회가 주최하고 예산군 체육회와 예산군 씨름협회가 주관하는 '2019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가 열렸다. 이 대회에 사할린주 씨름협회의 선수도 초대되어 참가했다. 러시아 팀은 외국 참가국 중 2위를 차지.

**11월 25일 - 30일** - 한국 국제 보건의료 재단 추무진 이사장을 비롯해 본 재단과 한국 보건복지부 대표들로 구성된 대표단 총 6명이 사할린을 방문하여 주 한인협회와 현지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 이번에 이들은 네벨스크, 고르노사위드스크, 토마리, 크라스노고르스크, 마카로브 등을 방문.

**12월 3일**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블라디보스톡협의회 황도연 회장과 박정훈 간사가 민주평통 사할린 고문들과의 만남을 가질 목적으로 사할린 방문. 19기 민주평통 블라디보스톡협의회 사할린 고문 6명에게 임명장 수여.

**12월 14일** - 사할린주 한인협회 결산 및 선거 대표자회의 개최. 사할린주 한인협회 회장으로 박순옥 재선.

# 재미로 보는 2020년(경자년) 띠별

'2020년에는 좋은 운이 들어올까'라는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띠별 운세를 확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운세가 안 좋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안 좋은 것을 참고하고 재미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2020년 띠별 운세를 보기 전에 2020년 대박띠는 쥐띠, 용띠, 닭띠, 돼지띠라고 합니다. 생년별로 차이가 있으나 운이 좋다고 하니 계획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쥐띠** : 좋은 변화가 생기며,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로 성공에 가까워지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띠** : 안정된 모습이며, 기본적으로 큰 변화 없이 평온한 한해를 보낼 수 있을 것. 상반기에는 별로지만 하반기에 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하반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결정을 내릴 때는 독단적으로 하기 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손실을 막을 것입니다.

**호랑이띠** :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속박과 어려움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느낄 수 있는 1년이 될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돈에 관련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며 질병으로 인해 지출이 늘 수도 있습니다.

**토끼띠** : 2020년에는 훨씬 자유분방하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며 좋은 궁합의 상대가 여러 명 나타납니다. 다가오는 만남을 위해 2020년 상반기에는 자신을 가꾸고 개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용띠** : 2020년에는 운세가 좋으며 바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운의 경우 지금까지의 노력이 인정받고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출과 수익이 많아지지만 금전 감각이 좋아 마이너스가 아닌 흑자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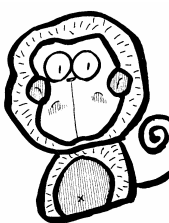
**뱀띠** : 운세를 좌우하는 키는 새로운 것에 대한 과감한 도전입니다.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과감한 일은 하지 않는 편인데 2020년에는 새로운 것에 도전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 도전하면 좋은 기운이 찾아옵니다.



**말띠** :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노력을 인정받아 소득이 오르거나 임시 수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띠는 이상이 높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민하기도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면 미래에는 큰 행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양띠** :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나쁜 일이 겹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그럴 때일수록 웃는 얼굴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 당신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원숭이띠** : 2020년에는 때때로 주위 사람들로 인해 좌절할 수 있습니다. 작은 말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취미 생활에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불리 남의 일에 손을 대지 않아야 합니다.



**닭띠** : 2020년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면 좋습니다. 운이 상승하는 추세라서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처럼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사업운과 재운은 좋으나 만남은 적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개띠** : 2020년 사업운은 좋지만 재운은 좋지 않습니다. 신경쓰였던 사람이나 골치 아팠던 일이 사라지게 되며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운이 걸림돌이 되므로 현명한 지출을 해야 합니다.



**돼지띠** : 사업운이 좋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상상력, 창의력이 풍부한 타입으로 아이디어가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평평 써버리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난감할 수 있습니다. 절약을 하는 것이 좋으며 사소한 거짓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 자료에서)

# 2020 러-한 경제, 문화교류 예산 '대폭 증액' 문화콘텐츠분야 323억원 등 러시아에 집중투자 전망

2020년 러-한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경제, 문화 교류 분야에 한국 정부의 상당한 예산이 배정됐다.

수교 30주년 행사 주관 부처인 한국 외교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2% 증액된 2조7438억원을 확보했다. 러-한 수교 행사에 상당한 예산을 소모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내년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이 큰 4강 중심의 공공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 외교 예산을 지난해 27억 원에서 올해 70억 원으로 2.6배 늘렸다. 러시아 등 신북방 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내실화 및 다변화를 위한 예산도 5억 원이 배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문학·문화재·영화·음악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고 총 34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문체부는 러-한 지자체 간 협력에도 힘을 보탠다. 지자체 문화 교류 및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해 내년 2월 국내 지자체가 참여하는 '한-러 상호 교류의 해' 준비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류 확산을 위한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문화콘텐츠 분야의 경우 영화·

만화·패션 등 분야별 해외 진출을 준비·진입·성숙 단계별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323억원을 확보했다. 내년은 '한-러 문화교류의 해'인 만큼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 쪽으로 투자될 전망이다.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러시아 진출 지원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KOMEA)은 블라디보스토크에 해외 수출 거점 기지를 설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23억 원을 확보했다. 내년에는 즈베즈다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 등에 관련 기자재를 수출하기 위해 KOMEA관계자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더욱 빈번하게 드나들 것으로 예상된다. 즈베즈다조선소 현대화 사업 규모는 러시아 정부 출자 예산액만 2조4450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내년에는 더욱 늘어날 러시아 관광객 등 외국 관광객들이 한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전용 공연장과 체험존도 만들어진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최첨단 공연이 가능한 '케이팝 전용 공연장'으로 바꾸는 데 171억원을, 케이팝 공연을 가상현실로 즐기고 한류 연예인과 증강현실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존을 조성하는 데 70억 원을 투입한다. (박기섭 프리마미디어 한국특파원, 2019년 12월)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mailto: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mailto: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mailto: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mailto:skr@sakhalin.ru)

### 새고려신문 2020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5루블리 1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ый месяц — 95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вь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ЗАГРУЗИТЕ НА Google play |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СКИДКИ И АКЦИИ
-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клама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30 декабря 2019 г. 16-3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